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8. 10.(목) 06:00 < 8.10.(목) 석간 > 배포 2023. 8. 9.(수)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표준으로 뒷받침

- 한미 간 표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한미 표준협력 포럼」열려

지난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한미 양국 간 핵심·신흥기술분야의 미래 지향적 표준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8월 10일(목)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산업부 장영진 1차관, ANSI(미 표준협회) 조 바티아 회장, NIST(미 표준기술원) 제인 모로우 선임자문관 및 양국 표준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한미 표준협력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5월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한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국가 표준전략'을 주무 기관인 NIST에서 직접 설명하였고, 국표원은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표준화 전략을 공유하였다. 또한, 민간 표준전문가들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자율차, 양자기술, 탄소중립 등 5개 분야의 기술 현황 및 표준화 동향을 발표하고 국제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행사에 앞서 8월 9일(수)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IEC)의 양국 국가대표기관인 국표원과 ANSI 간 양자회의를 통해 협력분야를 현행 5개에서 핵심·신흥기술 14개 전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구체적인 표준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WG) 신설과 공동 표준 제안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등 실질적 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하였다.

장영진 차관은 "이번 포럼은 첨예한 국제표준 경쟁으로 국가 간 전략적 연대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한국 간 표준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양국 간 전방위적 표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핵심·신흥기술 분야 국제표준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표준화기구 리더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표준정책국 국제표준협력과	책임자	과 장	박종섭 (043-870-5350)
		담당자	사무관	안찬종 (043-870-535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분과별 주요 논의 사항(주요 참여기관)

❶반도체 ((韓)전자기술연구원, 카이스트, 서울과기대/(美)NIST, Aerocyonics 등)

○ IEC TC47(반도체장비, 간사:한국) 국제 표준화 현황 공유 및 한미 간 중장기 표준화 협력방안 논의

☞ 극자외선 초미세 회로패턴 제작기술(EUVL) 검사장비 관련 공동연구를 통한 국제표준 개발 제안

❷AI ((韓)전자기술연구원, 정보통신기술협회, 고려대/(美)NIST, Philips 등)

○ 2023년 발효된 EU AI 규제법안에 대한 대응방향 및 한·미 공조방안 논의

☞ AI윤리 표준화 등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협력 방안 모색

❸자율차 ((韓)현대차, LG전자, 자동차연구원/(美)NIST, SAE 등)

○ 스마트 커넥티드 시스템에서 활용되는 통신·원격제어 분야 표준화 추진현황 공유 및 공동연구 안건 발굴

☞ 자율주행 안전 및 등급 인증을 위한 공동 연구과제 발굴

❹양자 ((韓)SK텔레콤, GQT코리아, 카이스트/(美)NIST, Intel 등)

○ 양자기술관련 국제표준화 추진 방향 공유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

☞ 센서, 디바이스, 통신 등 양자기술 분야별 표준화 로드맵 구축 방안 모색

❺탄소중립 ((韓)원자력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선급/(美)NIST, UL 등)

○ 수소·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소형모듈원전(SMR) 등 탄소저감기술에 대한 표준화 동향공유 및 향후 협력 논의

☞ 우리나라 탄소중립 표준화 포럼과 연계한 한-미 탄소중립 표준화 협의체 구성 및 협력 정례화 방안 논의

붙임 2 「한미 표준협력 포럼」 개요

□ **일시** : '23.8.10.(목) 09:30 ~ 13:00

□ **장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2층 대연회장(오키드룸)

□ **참석자** : (韓) 산업부 1차관, 국표원장, 표준 전문가 등 100여 명
(美) ANSI* 회장, NIST** 자문관, 주한美상무공사 등 20여 명

* ANSI(美표준협회, 국가대표표준기관), ** NIST(美기술표준원, 정부 표준연구기관)

□ **협력기관** : (美) ANSI / (韓) 국가기술표준원(KATS)

□ **프로그램(안)** (동시통역)

시간		내 용	비고
09:00~09:30	30′	• 포럼 현장 등록	
[축사]			
09:30~09:40	5′	• 축사	1차관
	5′	• 축사	주한美상무공사
09:40~09:48	4′	• 개회사	국표원장
	4′	• 환영사	ANSI회장
09:48~09:50	2′	장내 정리	
[기조강연]			
09:50~10:05	15′	• [美] 핵심·신흥기술 국가표준전략	NIST(표준정책선임자문관)
10:05~10:20	15′	• [韓] 첨단기술 표준화 현황 및 전략	KATS(국제표준협력과장)
[기술발표]			
10:20~10:35	15′	• [美] AI – 컨슈머테크	IEC US NC(회장)
10:35~10:50	15′	• [韓] 반도체 - R&D 및 표준 방안	세종대(김덕기교수)
10:50~11:05	15′	• [美] 양자기술 -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인텔(표준정책이사)
11:05~11:20	15′	• [韓] 자율차 - V2X 서비스 표준화	LG전자(ICT기술센터팀장)
11:20~11:30	10′	휴식(전문가 이동)	
[전문가 분과회의]			
11:30~13:00	90′	• 전문가 별도 분과 회의(동시진행)	하이브리드
		❶반도체 / ❷AI / ❸자율차 / ❹양자기술 / ❺탄소중립	

붙임 3 국표원-ANSI 양자회의

□ **일시** : ’23.8.9.(수) 15:00 ~ 16:00

□ **장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메이플

□ **참석자** : (美 - ANSI) ANSI회장, IEC 미국 NC회장 등 6명
(韓 - 국가기술표준원) 국표원장 등 7명

□ **의제(안)**

❶ 핵심·신흥기술분야 표준협력 점진적 확대

- 현재 5개인 분야를 핵심·신흥기술 전분야로 점진적 확대

  * (現) AI, 반도체, 양자기술, 자율차, 탄소중립(청정에너지)(신규)
  → (추가)핵심광물 공급망, IoT등 자동화·연결, 바이오뱅킹, 디지털신분증명 등

❷ 국제표준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Working Group) 신설

- 실질 성과 도출을 위해 구체적인 국제표준안 마련 작업반 신설 추진

  * (사례) 동북아표준협력포럼은 WG을 통해 ’02년~ 현재까지 29건 국제표준 제정

❸ 표준안 개발을 위한 공동 R&D 추진 및 국제표준안 상호지지

- 표준안 중복 개발을 방지하고 개발된 표준안은 국제표준으로 제정

❹ ISO회장당선자(조성환회장) 공약에 대한 ANSI의 협력방안

붙임 4 핵심 · 신흥기술에 대한 美국가 표준 전략 주요 내용

1 발표 배경

□ (배경) 미래 경제·안보와 직결된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로 표준 전략을 수립

※ **(8대 핵심·신흥기술)** ▲통신 및 네트워크, ▲반도체 및 마이크로 전자공학, ▲AI 및 머신러닝, ▲생명공학, ▲위치·경로·시간(GPS) 서비스, ▲디지털신분증명 및 블록체인, ▲청정 에너지, ▲양자정보기술

※ **(6대기술응용분야)** ▲IoT등 자동화 및 연결, ▲생물저장소, ▲자동화되고 연결·전기화된 교통수단, ▲핵심광물 공급망,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 ▲탄소 포집, 제거, 활용 및 저장

2 목표별 실행방안

□ 핵심·신흥기술 표준주도권 확보를 위한 4대 목표 및 8가지 실행방안 수립

❶ (투자) 핵심·신흥기술 R&D 지원 강화

① 연방 R&D예산확대(('23)2,010억 → ('24)2,100억달러 (90억달러↑))

② 국가 안보와 관련된 표준개발 지원

❷ (참여) 국제표준화기구 활동 참여 강화

③ 민간의 표준개발 참여 장벽 제거

④ 표준에 대한 공공-민간부문간 소통 확대 → 이를 통해 표준화 로드맵제공

⑤ 국제표준화 활동에서 우방국과 협력 강화 및 표준화 활동 리더쉽 확보 추진

❸ (인력) 표준전문가 양성

⑥ 신규 표준인력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

❹ (통합·포용) 통합과 포용을 바탕으로한 국제표준 제정

⑦ 과학기술협력협정에 표준활동을 포함시키는 등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표준협력 강화

⑧ 신흥국 표준전문가 양성 지원 등을 통해 표준개발에서 폭넓은 대표성 확보